

생활이 곧 참선이요 道이니 떤 데 가서 도를 찾지 마세요

21 면에서 계속

보는 거 찬안통, 마음으로 듣는 거 찬이통, 가고 몸이 없이 가고 오는 그것이 바로 신축통,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타심통입니다.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남녀의 정지 단지를 빌려서 바로 삼현이 한때 합체짐으로써 형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상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이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내가 나왔다고 하죠,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를 바로 내가 나왔으니까 갖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속명통입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가 다 포함여지 거기서 한 가지만 떨어져도 자동컴퓨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다섯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자, 운명, 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느냐? 삼천 년 전이나 몇억 겁 전이나 어저께나 조금 아까 전이나 일초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그달리고 관속에 그달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넓고 깊게 해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착을 두고 본질고 붙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망했다, 내가 벌었다, 이건 나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던 말을 마저 이어야죠?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것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그대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연방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성의 원리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교도 없었을 것이다. 부처 중생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없다면 무효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낫으니까 절하고 잘못하는 것도 생긴 것이고 모든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더 믿고 너무더 알아라, 착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착은 뿌리에게 태양열과 공기력을 공급하고 뿌리

는 훨씬 지분 수분, 이 모두를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싹이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만 땅에 뿌리와 착을 똑 잘라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벌써 송장이 될 겁니다. 영혼의 뿌리만, 여러분이 몸통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기운이 되면 낙엽이 쳐서 잎만 떨어질 뿐 그 이듬해 봄이 오면 다시 이파리가 상상하게 나듯이 이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속에도 그달려지고 말고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이 거릴 필요가 없죠. 모든 마음 자체가 아예도 없고 내일도 없으니 오는 내가 그냥 응도에 따라서 딱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몽땅 응광로에 다 넣듯이 그냥 자기발전소에만 일임하는 겁니다. '응, 내가 이렇게 형성시켜서 살게 했고 내가 이 몸통이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너만 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둘 때에 바로 응광로에다 넣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부스럭이든 찌꺼기든 다 응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갑니다. 금도 반지 목걸이 거걸이, 잘못된 거 많은 거 할 것 없이 응광로에다 넣어서 바로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반지와 목걸이 거걸이 여러 거를 다 생산시켜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 지금 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형성시킨 고놈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내면세계의 정신계를 파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는 하나 간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확률적으로만, 이런 으르민 배운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가 아니면 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우지 말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禪)과 교(敎)는 둘이

아닙니다. 천지도 둘이 아니요 남녀도 둘이 아니요 늙음과 젊음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흑세계로부터 생각을 해 본다면, 지수화풍이 한때 모여서 검은 지평선의 에너지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또 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가 형성되는 동시에 은하를 형성시켰고 또 블랙홀을 형성시켰고, 지금은 블랙홀이라고 합디마는 큰 별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회사 같으면 회장을 만나 이루었다 이거죠. 그 회장으로 인해서 모든 은하의 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냐다 들었다 하는 작용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들 냐다 들었다 하는 작용을 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라고 작용하고 이버죠? 그거와 같이 일체 우주 전체 모든 태양계와 모든 외성과 모든 별성들이 모두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내고 들이고 내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부스럭이든 찌꺼기든 다 응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갑니다

들이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신이 되고 모두가 웃을 것이고 다시 새 웃을 입고 이러한 작업을 지금 쉼 사이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발전해서 창조력을 기르고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어느 곳에, 틀에다 세워 보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뜻으로써 연결이 되고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말로 해서 연결이 되고 통하고 하는 것이 교예요. 풀 한 포기 생명도 바로 불(佛)입니다. 불,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스님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용하고 먹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오즈음 종단에서 이리쿵저리쿵한다고 해서 신신들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입니다. 무슨 불교가 망했네, 불교가 다했네, 이런 소리

들을 하시지만 어떤 반쯤어찌도 없는 소릴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열이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부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도가 일어서 위의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 것이 위로 오고 이렇게 순환을 거듭거름 해아면이 위의 것은 아래 걸 먹고 아래 것은 위의 걸 먹고, 서로 찬 기운을 온기로, 또는 먹을 것을 물이 버터빈(C처럼 공급함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님네들 개인 종단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며 어떻게 개혁이 되며 어떻게 발전을 이루며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시죠? 어느 날 한 신도가 울면서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스님, 지금 우리 아들이 나가서 며칠째 안 돌아오고 있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어지럽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이 다 되도록 풀까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간신히 간신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그래요. 무이 메어서 말입니다. 아들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대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우승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나한테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

지금 이 말을 하다가 또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수역결 광년을 거쳐면서 오만한 모기가 딱정벌레보다가 회하고 이러듯이 그 모든 것이 자꾸자꾸 진화되고 바뀌고 이에서 인간까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먼저 되고 맨 나중에 인간이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알고 본다면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편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편 집의 자식이 됐다가 또 그 집의 부모가 됐다가 또 편 집의 자식이 됐다가 또 부모가 됐다가, 연방 이라고 돌아가다 보니까 올챙이에 이르기까지 자식 부모가 안 됐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내 자식같이, 내 이름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육을 하고 때리고 나가서 돼지라는 등 이렇게 마구 한다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서 더 문제가 커진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장난 것은 바로 마음으로 그 업보를 면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서 자꾸 관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요. 그러나 전력과 같은 겁니다. 그 아이한테도 자기발전소가 있고 나한테도 자기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그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응도에 따라서 그 전력을 끌어 쓰는 데 달려 있는 거지 전력이라는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마한테 명신 주인공과 개 주인공이 뿌리가 틀이 아니니 그 뿌리만이 개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방에 전등을 세 개씩 달아 놓았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바로, 전력이 바로바로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력은 한 군데 있으면서 전구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자식과 부모가 틀이 아니다, 전력이 틀이 아닌 깨달음에 전구만 여러 개가 있는 거와 같으니까 진짜로 믿고, 전력은 틀이 아니니까 그 전구를 이끌어 가는 것도 틀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꾸 관하라." 이었습니다. 그렇게 관하라고 하니가 울며불며 그냥 가고는 얼마를 안 나왔요. 그러더니 허부는 아주 심기가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에요? 또 올 일이 생겼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글썽 어느 날 허부는 안 돌아와서 그냥 아주 속이 상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를 참고 그렇게 관하고 있으면서 장독을 무는데 부시시 들어오더니 '엄마, 화나셨죠? 무거운데 제가 좀 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그걸 같이 무아서 장독대에 놓더니 그날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착해졌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84년 6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실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